

데스크시각

김우성



제18대 총선일, 유권자 혁명의 날이 1주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처럼 체감하는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임하는 이 지역의 대다수 유권자들의 기분은 여간 답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 후보가 선거일을 불과 보름여 남기고서야 정해진 탓에 후보들간 흡집내기 공방, 각종 불·탈법의 자행, 세금 체납 실태 등을 보면서 선뜻 마음에 내키는 후보를 찾아내지 못한 때문이라라.

과거정부대 행정부 행태 심판

사실 이번 선거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국정 안정론과 민주당의 경제론 간 한 판 승부다. 선거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목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여대야소나, 여소야대나 전적으로 유권자들의 판단 영역이다.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과거 정권의 잘못을 심

판하느냐, 대신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행태를 심판하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셈법과 달리 훨씬 이성적인 선택을 해왔다.

유권자 혁명을 기대한다

17대 총선에선 탄핵 역풍속에서도 집권여당에 152석을 준 대신 '차떼기' 비난속에 망할 듯하던 한나라당에 121석을 주며 강력한 견제력을 만들어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기가 높았던 16대 총선 때도 여당은 115석으로 한나라당의 133석에 뒤졌었다.

일반적인 선거는 없었다. 이번에도 한 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길 것 같은 분위기였으나 극심한 공천 후유증 등으로 그런 기세가 꺾인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쇠신을 위해 몸부림쳤지만 '계과간 나눠 먹기' 등 막판 구태 재현으로 유권자들이

실망시키고 말아 바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권자들도 선거에 별 관심이 없다. 선관위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우려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이런 유권자발 실망감의 반증이다.

하지만 유권자로서 외면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선거일수록 국민 각자의 참정권 행사는 오히려 더 소중하다. 어떤 인물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더 깊어 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로서 그릇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정치 개혁을 말할

있을 것인지, 꿈꿈이 따져 볼 일이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각 시대의 역사적 소명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총선을 정기적으로 치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 철학과 방법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

한표, 한표의 소중함 보여주자

후보는 후보대로 정치 선진화를 갈구하는 시대정신을 읽어야 한다. 공천을 당선처럼 여기는 지역의 무능하고 오만한 정치인들을 여겨워 하는 민심을 깨թ어 봐야 한다는 얘기다.

진정 생산적인 정치인, 국민에게 함께 뛰자며 앞장서 뛰는 정치인이 승리하는 선거가 반복될 때 이보다 확실한 정치 개혁은 없다.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 어디 있는 지 똑바로 읽고 가장 현실적 수단으로 국익을 창출하려는 정치인과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계속 받는다면 그 자체가 가장 성공적인 정치 개혁이다.

9일은 유권자발 정치 개혁의 날이 돼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의 소원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한 방', '한 방'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시설

소비자물가 4%대 상승 심상치 않다

물가불안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에 육박해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세계은행이 1일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5.1%에서 4.6%로 낮췄기 때문이다.

3월 소비자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록금 등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9% 오르며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광주와 전라도 지역 소비자 물가가 각각 4.0%, 3.5%를 기록해 다섯 달째 3%대 후반을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물가 고공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문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무려 4.9% 급

등했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품목도 수두룩하다. 그만큼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가파른 물가상승은 서민 살림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실질소득을 떨어뜨려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 둔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대책마련에 실패(失機)하면 물가 불안 속에 경기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 무조건 값을 올리고 보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에도 주력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한번 생기면 되풀이하기 쉽다. 기업과 근로자도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제품 가격 및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후퇴를 막는 데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다.

아동 실종사건 전면 재수사 제대로 하라

경찰이 과거 발생한 아동 실종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전남의 수사 대상은 2000년과 2001년 감진에서 일어난 2건의 초등학생 실종사건을 포함, 4건이다. 아동 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을 감안하면 뒤늦은 조치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된 실종 수사전담팀을 설치했다. 일단 경찰서에도 전담팀을 구성해 아동 실종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대통령의 질타가 없었으면 기대하기 어려운 신속한 대응이다.

그동안 아동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실종 신고 해도 수사의 불신을 초래한 경기도 일산의 초등학생 납치 미수사건처럼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초등수사에 소홀했고, 그 결과 단순 가출로 처리되기 일췌였다. 수사 아은 완도군민과 관련 학자들이 이제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살아 있기만을 기원하며 절박감과 애절함에 눈물을 흘리고 때론 치미는 분노를 추스르기 힘들 것이다. 부모와 가족이 생명을 내팽개치고 전단을 만들어 실종 아동을 찾는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다.

아동 실종사건 전면 재수사는 경찰의 시험대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 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민생 치안보다는 '사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실종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실종사건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납치와 실종 등 아동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지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류동훈



이제 총선이 일주일 남았다. 공천 과정에서 경쟁했던 기간까지 합하면 몇 달 동안 후보자들은 피가 말리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된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공천 때 뛰었던 후보들까지 합하면 거의 모든 선거구에 10명 이상의 후보자들이 노력했지만, 당선은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선거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낙선자 상당수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자금 끌어다 쓴 것, 여러 사람들에겐 신세진 것도 부당하고, 사람들이 낙선자라고 자꾸 손가락질 하는

필 가능성은 낮아 보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크게 소리쳐 만세를 불렀던 것이다. 그때 좋아하던 후보자와 운동원들의 모습이 집에 가서도 자꾸 떠올라 그날 밤 내내 기분이 좋았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 화이팅 한마디가 가슴에 단비처럼 우리 선거를 축제로 만들어 줄 것이다. 울동을 열심히 하는 운동원들이 있으면 또 함께 음악을 맞춰 춤도 추어주자. 지지율이 낮아지고 전하는 후보들일 수록 더욱 따뜻한 애정으로 이들을 감싸자. 노래자랑에 나

후보자를 보면 파이팅을 외치자

것 같아 피하고 싶다고들 한다. 당선된 사람도 즐겁고 낙선된 사람도 즐거울 방법은 없는가? 패자가 잇기에 선거가 존재하는 것이다. 낙선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지역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하다가 재선에 실패한 의원들도 역시 설자리가 마땅치 않아 계속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국정 경험을 살려 NGO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왔으면 한다. 치열한 레드오션에 미련을 가지는 것보다 블루오션에서 시멘트를 위해 일한다면 즐거울 것이다.

필자는 며칠 전 길을 지나가다 길거리 차랑에서 유세하는 후보를 보고 힘차게 "OOO후보 파이팅!!"을 외치면서 만세를 불렀었다. 그 후보가 당선

된 가수들에게 상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떨어진 사람에게도 박수를 보내며 그 순간을 즐기 듯 후보자들 연설을 경청하고 박수를 보내자. 또 후보자를 만나면 무슨 일이 해보고 싶냐고 물어보고 자기 의견도 전해주자.

당선만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박 터지는 선거문화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을 모두 피곤하게 하고 선거가 끝난 후 많은 갈등을 낳는다. 선거를 통해 한 번씩 내가 이 나라와 이 지역의 주인이며, 나는 우리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만들어야.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이 선거제도는 프랑스 대혁명, 명예혁명 등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던 수많은 인류 역사의 산물이다.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자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배려하는 마음 가졌으면

장애인이 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갔다. 장애인 한 분이 바깥바람을 쐬고 싶다고 해서 버스를 탔다. 장애인 신분증을 제시하며 승객적으로 "고맙습니다" 인사한 후 자리에 앉았다. 그 때 운전석에서 "에이, 웬 무덤들이 이렇게 많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운전자가 혼자말로 토너 말았지만 그 속에는 "집에나 있지 왜 나왔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듯해서 화가 났다.

장애인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필자가 민망했다. 그나마 필자와 함께 있었으니 말짱이 혼자 앉아 있다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꼈을까.

장애인들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죄 지은 듯 움추러 들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장애인이 뿐 아니라 상이군경이나 경로우대자들의 무임을 위해 국가가 버스회사에 각종 지원을 해주고 유튜브·결혼분까지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지원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노력하는데 어쩌다 인품이 덜 된 사람들이 장애인과 노약자를 귀찮아하고 무시해 버리니 답답하다.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선화·광주시 서구 마루동>

기고

김종식



"...순례가 끝나면 다시 적산포에 돌아와 청해진을 거쳐 귀국하려 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장대사님께 이러한 사정을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 소생들의 귀환은 오로지 귀하의 너그러우신 배선(配船) 조처에 달려있음을 삼가 아뢰옵나이다."

일본의 유명환 승려 엔닌(圓仁)이 당나라에서 구법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신라 선박편의 제공을 의뢰한 서간문의 한 구절이다. 신라 신문왕 원년(839년)에 씌어진 이 서간문은 당시 '장대사(장보고)'의 해상제패권을 입증하고 있다.

9세기 초엽 통일신라 후기, 완도에서

하고 동아시아 3국 공통 코드인 불교를 받아들이는 등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극 도입한 국제무역왕 장보고는 시대를 앞서가는 '글로벌 리더'였다.

이러한 장보고의 위업과 정신이 장보고 관련 사학자들과 기념사업회, 완도군 등의 노력으로 재평가되어, 장보고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물과 유적 자료들을 한 곳에 모은 장보고 기념관이 완도에 건립돼 최근 문을 열었다.

그간 대사의 정신을 되새길 만한 기념관 하나 없다는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온 완도군민과 관련 학자들이 이제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장보고 기념관과 그의 정신

'축미한 신분'(삼국유사)으로 태어난 장보고는 신라의 골품제도와 왕위쟁탈전에 환멸을 느끼고 당나라로 건너가 청하고 박수를 보내자. 또 후보자를 만나면 무슨 일이 해보고 싶냐고 물어보고 자기 의견도 전해주자.

장보고의 무역선인 교관선은 당나라 황해 연안을 따라 적산포, 천주, 조주는 물론 일본 하카타와 멀리 페르시아만까지 해상실크로드를 개척하여 평화와 우호의 뱃길을 열었으며, 당나라와 일본에서는 선박이 고장나면 청해진에 와서 수리를 받을 정도였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 물류왕의 중심이었던 청해진은 요즘 말로 하면 혁신 클러스터의 허브였어던 것이다.

청해진의 활동에 당과 일본을 참여시키기 위해 당나라 직제를 그대로 차용

된 것이다. 완도군은 기념관 건립에 이어 기념관 부근에 참배단과 해양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장보고 동상과 청해진 본영인 장도를 연결하는 목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보고 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이 곳에 발길 닿는 이들의 가슴마다 끊이지 않는 장보고의 정신이 아로 새겨지기를 바란다.

밀바다 신분에서 세계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청해진이라는 해상왕국을 건설하기까지 장보고의 파란만장한 일생에서 우리는 주어진 운명에 꺾이지 않고 끊임없이 반전을 꿈꾸는 '노마드(유목민)'정신을 읽는다.

유목민인 몽골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말은 '코르코다크'라고 한다. 이는 '변화 없이 한 곳에만 머무른다'는 뜻이다. 한 곳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발 딛는 불모지를 꿈의 터전으로 바꾸어 놓고야 마는 노마드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슴 속에 되새겨야 할 정신일 것이다. <완도군수>

비정규직 시간강사 제대로 대우해야

남편은 시간강사다. 일주일마다 다섯 시간 대학에서 강의해서 받은 수입이 한 달 80만 원 안팎이다. 그러다보니 여러 대학을 바쁘게 오가며 강의한다. 그래도 생계는 버텨가만 하다.

정규직 문제가 작년에 해결됐지만 시간강사들에는 오히려 득이 됐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되기 때문이다.

또 대학측과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 약자인 수밖에 없다. 가법근은 길지만 그 만큼의 처우는 따라주지 못하는 게 시간강사들의 현실이다. <그레

서 시간강사들은 생계를 위해 학원 강이나 눈술 파와같은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생들 가르칠 연구를 해야 할 시간에 부업을 하고 강의를 많이 하기 위해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다보면 시간이 지날 수록 질적으로 저하된다. 이는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한 달 전쯤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영어 시간강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시간강사 4년만에 자신의 처지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정말 시간강사의 대우가 언제쯤 개선될지 모르겠다. <▲이정애·목포시 보광동>

無等鼓

1932년 3월 1일 밤, 찰스 A. 린드버그의 20개월 된 아이가 침대에서 사라졌다. 현장에 남긴 협박편지에는 '아이를 데리고 가니 5만달러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세계 최초로 대서양 단독 비행에 성공한 린드버그는 미국사회의 영웅이었다. 미국인들은 린드버그 가족에게 동정을 표했다. 그러나 결말은 비극이었다. 몸값은 지불됐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실종 50여일 후 집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숲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2년 후 리처드 하우프만이 범인으로 체포됐고, 진범 논란 속에 사형이 집행됐다. 미국 의회는 이 사건 이후 유괴

안이다. 이 범은 아동 성폭행 범죄자의 최소 형량을 25년으로 정했다. 또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채우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인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시카법은 미국의 다른 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앰버경보'(Amber Alert)는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납치·살해된 9살 소녀

앰버 헤거먼의 이름을 따왔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도입한 앰버경보는 아동 유괴·납치 사건 때 발령되는 비상체계를 총칭하는 세계적 보통명사가 됐다.

경기 안양에서 이해진, 우예슬양이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번에는 일산에서 성폭행 전과자에 의한 어린이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아동 성폭행법 엄벌을 골자로 한 가칭 '해진·예슬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두 어린이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만들어져야 할 법이다. </오주승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해진·예슬법'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20	사 회 1 부 222-4267	조 사 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